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에 관한 연구

김선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f Tie-Dy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expressive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tie-dye show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 doing so,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zed the works show cased for 2001S/ S through 2010F/W, especially from the "big four" collections in Paris, Milan, New York and Londo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tie-dye techniques such as tying, folding and sewing are used in an independent or combined manner to express unique images. They also highlight decorative images in combination with a variety of decorative techniques including draping, pleating, beading. In light of its characteristics, tie dye expresses unique formative aesthetics with diverse patterns and creates more gorgeous images than when many different colors are used for dyeing. The dyeing process works as a critical factor influencing the overall image of design, as it is expressed as a pattern by being applied on the whole of an item rather than in part of clothes. The characteristics of tie-dye techniques us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are associated with the expressions of natural beauty, abstract decorative beauty, and dynamic rhythmical beauty.

Key words: Abstractness, Contemporary Fashion, Rhythm, Naturalness, Tie-dye

1. 서 론

인간의 의생활과 함께 시작된 염색은 초기에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미적욕구와 다양한 문화의 진보에 따라 발전되고 탐구되어 고도의 창조적인 기법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홀치기 염(tie-dye)은 염색기술 중 방염을 하기 위한 인류문명 최초의 단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응용되고 변모하여 오늘날 현대 섬유예술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의 섬유예술은 과거 공예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염직의 개념에서 벗어나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욕구를 표현하는 새로운 장르로 대두되어와 지금까지 사용된 재료와 표현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적인 재료의 사용과 설치, 조각적 입체작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표현기법을 추구하고 있다(이주연, 2000). 특히 홀치기염과 같은 염색기법은 각 지역에 따라 그곳에 맞는 상황이나 소재를 기본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용품에 응용, 발전해오다가 기법 특유의 다양화 및 응용화가 작품제작에 큰 영향을 주는 현대 섬유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창작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사회와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표현영역의 확대 및 소재나 기법을 공유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패션 역시 고정적인 의상디자인의 개념이나 실용적 문제와는 별개로 디자이너 자신의 주관적 예술성과 창조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미적가치를 표현하게 되었다. 또 현대 패션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성화와 차별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보다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부각됨에 따라 소재와 문양은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게 되기도 하고, 디자인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등 소재표면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재질을 표현함으로써 차별화, 고급화, 상징화 되고 있다. 특히 패션 소재의 문양은 선이나 색채, 그리고 재질을 동시에 포함하는 독립적 디자인으로 무늬가 갖고 있는 선과 색채는 패션디자인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의복의 시각적 효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패션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독창적인 소재의 개발과 선택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홀치기 염은 다른 기법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특유의 표현성을 나타내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홀치기 염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혜경(2001)이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출판된 Vogue와 Mademoiselle 잡지에 실린 홀치기 염 사진자료를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Corresponding author; Sun Young Kim
Tel. +82-61-750-3685, Fax. +82-61-752-3680
E-mail: ksy6341@sunchon.ac.kr

과 청년층에서 시작된 이 패션이 미국의 대중 및 상류층 복식에도 확산되었음을 밝혔고, 문송이(1997)는 가죽소재에 홀치기 염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류말지(2002)는 홀치기 기법을 응용하여 연꽃과 물, 하늘, 바람 등 자연을 형상화 시킨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주연(2000)은 현대 섬유예술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다. 이와 같이 홀치기 염에 관한 선행 연구는 섬유예술의 측면에서 접근되거나, 홀치기 염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만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표현특성을 통해 홀치기 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현대패션에서의 조형영역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홀치기 기법을 통한 풍부한 시각적 효과들로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홀치기 염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 하였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1S/S부터 2010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컬렉션 지 및 인터넷 패션쇼 사이트를 참고로 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서는 홀치기 기법의 표현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홀치기 염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 할 수 있는 작품 총 252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실물이 아닌 컬렉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염색방법에 관한 확인은 패션 컬렉션 지와 인터넷 패션쇼 사이트인 스타일닷컴(www.style.com)의 리뷰 기사와 텍스타일 및 패션디자인 전공자 3인의 자문을 참고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홀치기 염의 개념과 기원

홀치기 염은 직물, 가죽, 종이, 한지 등에 형태를 염색하는 가장 오래된 염색방법 중 하나이다(이상태, 2001). 일반적으로 천의 일부분을 실, 나무, 판, 막대기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접고, 묶고, 매듭짓고, 동여매고, 바느질하거나 주름을 만드는 등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방염하고 염색하여 어떤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백태호, 1990). 홀치기염의 작업과정은 디자인을 구상하고, 천을 준비하여 정련 처리한 후, 디자인에 따라 묶거나 접거나, 바느질한다. 그리고 침염하여 건조시킨 후 풀고 다시 묶거나 묶은 위에 다시 염색하여 건조시킨 후 다림질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게 된다(송번수, 1991).

초기에는 세계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특정 부족의 일상용품에 문양을 표현하거나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되다가 다른 부족과 또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그 기법이 발달해온 가장 소박하고 원시적인 염색기법으로 그 기원은 대단히 오래되고 분포도도 매우 높다. 홀치기 염 천의

유물에 의하면 고대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인도대륙에서 서쪽으로는 고대 대상들이 다니던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거쳐 아프리카로 보급되었고, 남쪽으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음이 일반적인 견해이다(Dona, 1973). 홀치기 염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서양에서는 기원전 1-2C경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행하였고, 그 기법이나 형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많지만 기본적 원리는 다르지 않으며 각 지역의 풍토나 관습 등에 따라 나름대로 발달되어 온 소박한 염색기법이라 할 수 있다. 유물로는 AD 6-7C Hyderabad의 Ajanta 동굴의 벽화에서 현재의 홀치기 무늬와 똑같은 회고 둥근 형태의 플랑기 무늬가 프레스코 화법으로 벽화에 묘사된 것을 보아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Else, 1971).

홀치기는 그 역사가 깊고 세계각지에서 행해진 만큼 명칭도 매우 다양한데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타이 다 이(Tie Dye)’라 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랑기(Plangi)’라고 불린다(Grethe, 1989). 인도에서는 플랑기에 해당하는 같은 작업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반다나(Bandanna), 춘리(Chunri)’라고도 한다. 이것은 모두 문양의 색과 주제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며, 춘리란 호칭은 이미 영어화 되어 주로 붉은 바탕의 홀치기 천의 공정을 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유하타(Yuhata-묵다)’라는 용어로 16세기까지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시보리(Shibori)’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것은 ‘묶는, 비트는, 누르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보루(Shiboru)’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홀치기 하는 과정의 기법이나 홀치기 된 천 모두를 시보리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홀치기 염’ 또는 ‘교방염, 교염’이라 칭한다. 아프리카에서는 홀치기를 ‘아디레(Adire)’라고 하여 ‘잡고 묶은 후 염색하다’라는 의미가 있다(이주연, 2000).

이와 같이 홀치기 염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어떤 문화에서나 기법은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이카트(Ikat), 플랑기(Plangi), 트리틱(Tritik) 등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카트는 1900년대에 유럽에 소개된 단어로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맹기카트(Mengikat)’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묵다, 감는다, 잡아맨다’의 뜻이다. 염료가 실 전체에 번지지 않게 방염하기 위하여 꼬거나, 감고, 잡아매기도 하여 침염의 방법으로 물들인 후에 후처리하여 이것으로 직물을 짠 것을 이카트 직이라 한다(서재행, 1991). 사용된 실의 종류에 따라서 이카트 직조법은 전면에 걸친 혼색이 될 수도 있고 색채가 잘 스며들지 않는 굵은 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늬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Dona, 1973).

플랑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용어로 유럽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색(Many colored)’ 또는 ‘의식적인 점무늬(Reserved dot)’라는 뜻으로 사용했다(Jack, 1976/1994). 인도에서는 ‘반다나(Bandanna: 대 또는 묶는다는 뜻)나 춘리(Chunri)’라고 더 많이 불려졌다. 영어로 반다나라고 하는 것은 진한 색 바탕에 흰무늬를 박은 커다란 천을 말하며 이것은 귀족의상 또는 특별

한 옷에 수많은 홀치기를 하는 유명한 기법이다(문송이, 1997). 이 플랑기도 기술적 방법은 현대의 것과 마찬가지로 묶는 방법에 따라 그 문양이 다양하며 묶는 재료도 나무줄기, 실 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플랑기는 오늘날의 Tie Dye를 말하며 일본의 경우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시켜 일본 고유의 민속공예의 한 기법이 되었다(서재행, 1991). 플랑기의 기법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아직도 의복 천의 장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염색법과 같이 합성염료가 천연염료를 대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제도를 제외하고 플랑기의 기법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Jack, 1976/1994).

보다 복잡한 플랑기 문양은 천을 바느질로 홀쳐매어 방염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트리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어원은 자바어로 스티치 하여 방염하는 방법을 말한다. 트리틱은 방염문양의 주변에 바느질로 생긴 작은 구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염색된 천을 보고 그 기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아주 작은 홀치기의 집합으로 플랑기와 구별된다. 트리틱은 기본적인 플랑기 기술과의 조합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플랑기와 트리틱의 조합은 일본이 잘 알려져 있고, 동 자바, 남 수마트라, 캄보디아에서도 성행되고 있다(Jack, 1976/1994).

또한 전통적인 홀치기 기법은 일본, 아프리카 등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기법이지만 전통적인 직물의 장식기법으로 널리 보급된 과거의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새로운 예술표현으로 각광받게 되어 그 영역이 보다 확대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기법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변모시켰으며, 1975년 캘리포니아 ‘홀치기 작가협회’가 발족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단체나 모임이 형성되고, 일본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작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홀치기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주연, 2000), 이러한 섬유예술의 변화는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2. 홀치기 염의 표현기법과 특성

방염기법 중의 하나인 홀치기 염은 직물의 바탕과 염색된 곳이 적당한 요철 감을 나타내 독특한 표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홀치기 염의 표현기법은 묶는 방법에 따라 또는 이용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100여종에 가까운 기법이 있으며(류말지, 2002), 기본적으로 묶기, 접기, 바느질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하거나,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을 나타내게 된다.

홀치기 기법 중 묶기는 플랑기(Plangi), 카노코(Kanoko), 아디레 엘소(Adire eleso)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세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홀치기 기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원시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Grethe, 1989). 이 기법의 디자인은 실로 각각의 형태를 묶거나 천을 부분적으로 잡아끌어 당겨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염색과정 시에

실의 장력, 천의 저항력 등이 각 단위의 구성을 결정하고 실의 배치, 간격, 실의 양 등이 염료가 스며드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Yoshiko et al., 1993). 묶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천을 묶는 방법, 곡식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묶는 방법, 뽕죽한 침이나 핀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묶는 방법 등이 있다.

접기는 아디레 오니코(Adire oniko), 판염(Clamping)이라고 하여 천을 접어서 고정하여 염색하는 모든 기법을 말하며 천이 접히는 방향과 접는 방법의 응용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이주연, 2000). 접기의 방법은 크게 천을 병풍 접기, 삼각 접기, 사각 접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어서 부분 혹은 전체를 염색하는 방법과 접은 천을 도구를 이용하여 압축시킨 후 염색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연순 외, 1997). 도구를 이용하여 압축시킬 때에 기본적으로 한 쌍으로 된 나무판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C자형 꺾쇠,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판 등을 사용한다.

바느질하기는 트리틱(Tritik), 카와마키(Kawamaki), 아디레 알바레(Adire Alabere)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직선이나 곡선 혹은 자신이 원하는 문양대로 표현할 수 있다. 강한 실을 사용해 바느질로 총총히 홀쳐 맨 후 천이 서로 밀착되어 주름이 생길 때까지 잡아당기고 염 액 속에 담그면 홀쳐맨 부분에 극히 소량의 염 액이 침투되거나 실로 단단히 묶은 부분은 완전히 방염되며 여기서 다양하고 섬세한 농담의 무늬를 얻게 된다(이주연, 2000).

이러한 기법으로 통해 표현되는 홀치기 염의 특성은 첫째, 우연에 의한 추상성이라 할 수 있다. 홀치기 염은 천에 문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천의 부분을 묶고, 감고, 돌리거나 또는 접어서 문양을 형성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작업과정에서의 반복행위와 작업 완성 시 얻는 우연적 효과는 홀치기 염 특유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홀치기 염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번지는 색의 농담 표현으로 비구상적이면서도 회화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주연, 2000).

둘째, 독특한 표면효과에 의한 장식적 효과이다. 홀치기 염은 침염의 과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직물의 앞뒤가 똑같은 문양이 나오며 완성된 후 직물표면에 홀치기 특유의 주름과 구김살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염색과정의 과정에서 기인하는 주름으로 이러한 요철은 독특한 질감의 효과를 나타내 홀치기 염 특유의 특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요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염료를 데우거나 또는 염색 전에 묶은 천을 삶는 등 방염에 열처리를 가하여 천의 표면상 주름에 영속성을 부여하기도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셋째, 독창성이다. 홀치기 염은 묶기, 접기, 비틀기, 바느질 등 평면인 직물을 3차원의 입체형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 유일무이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즉 작업자의 성향, 작업의 소재, 염료의 착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독창적인 문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Table 1. 훌치기 염의 표현기법에 따른 문양

구분	훌치기 염의 표현기법에 따른 다양한 문양			
묶기				
	원 문양 묶기	햇살 문양 묶기	자유롭게 움켜쥐고	묶기 비틀어 묶기
접기				
	삼각 접기	병풍 접기	삼각판 접기	사각판 접기
바느질기법				
	겹 감침질	불규칙적인 바느뜨	접어서 모양대로홈질	두 겹 감침질
복합기법				
	풍 접기와 묶기	사각판 접기와 묶기	홈질과 묶기	접기와 바느뜨, 묶기

염색방법의 측면에서 훌치기 염은 기본적으로 염 액에 천을 침전시켜 전체를 염색하는 침염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묶은 부분을 거의 일시에 풀기 때문에 색채는 바탕색과 염색한 색으로 한정되었고, 다색의 훌치기염도 침염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이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법은 같다. 훌치기염이 사용되는 천은 전통적으로 면과 견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천에 국한되지 않고 종이, 가죽, 플라스틱, 금속 및 금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에 사용되거나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열전도기 등을 이용하여 훌치기의 주름을 영구화 시키는 등 시대를 반영하는 현대적인 재료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이주연, 2000). 훌치기 염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표현기법에 따른 문양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신영선, 박옥미, 2003; 이상태, 2001; 이연순 외, 1997).

3. 현대패션에 나타난 훌치기 염의 표현기법과 특성

2001S/S부터 2010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 작품 중 훌치기 염의 특성을 나타낸 252점의 자료에 관한 시즌별, 표현기법별 분포는 Table 2와 같

Table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훌치기염의 시즌별, 표현기법별 분포

현대패션에 나타난 훌치기염의 시즌별 분포				
	S/S	F/W	Resort	계(%)
2001	3(1.2)	0(0.0)	0(0.0)	3(1.2)
2002	6(2.4)	4(1.5)	0(0.0)	10(3.9)
2003	8(3.2)	0(0.0)	0(0.0)	8(3.2)
2004	23(9.1)	8(3.2)	0(0.0)	31(12.3)
2005	9(3.6)	0(0.0)	0(0.0)	9(3.6)
2006	26(10.3)	0(0.0)	0(0.0)	26(10.3)
2007	15(5.9)	8(3.2)	2(0.8)	25(9.8)
2008	36(14.3)	2(0.8)	6(2.4)	44(17.5)
2009	3(1.2)	0(0.0)	9(3.6)	12(4.8)
2010	79(31.3)	2(0.8)	3(1.2)	84(33.3)
계	208(82.5)	24(9.5)	20(7.9)	252(100)
현대패션에 나타난 훌치기염의 표현기법별 분포				
접기	48(19%)	바느질기법	28(11.1%)	
묶기	106(42.1%)	복합기법	70(27.8%)	

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훌치기염의 경우 F/W시즌보다는 상대적으로 S/S시즌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ig. 1. Blumarine, 2010S/S

Fig. 2. Tory Burch, 2010S/S

Fig. 3. Unique, 2008F/W

Fig. 4. Matthew Williamson, 2008S/S

Fig. 5. Martin Sitbon, 2002F/W

Fig. 6. Michael Kors, 2009Resort

이는 홀치기 염의 특성상 두꺼운 소재보다는 얇은 소재에 적합하고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S/S시즌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추측된다. 표현기법의 유형은 묶기의 방법이 4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복합기법이 27.8%, 접기가 19%, 바느질기법이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3.1.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표현기법

홀치기 염은 묶거나 접는 등 방염 된 부분에 염료의 침투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여러게 스며든 흔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감을 보여준다. 염색기법이 간편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홀치는 방법과 염색방법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써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기법은 묶기, 접기, 바느질 기법뿐만 아니라 복합기법, 그리고 단색과 다양한 색상의 조합, 배열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홀치기 염의 대표적인 기법인 묶기의 경우 크게 원형문양이 나타나게 하거나, 전체 면에 자유로운 문양이 나타난 경우로 구분되었다. Fig. 1은 심플한 원피스에 원 문양 묶기로 표현된 홀치기 염으로 단색의 단순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2는 스커트에 여러 개의

원 문양을 통해 점진적인 울동미를 나타낸 것으로 재킷에 표현된 스트라이프 문양과의 대비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Fig. 3은 자유롭게 움켜쥐고 여러 겹의 다양한 묶기를 통해 전면의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추상적인 장식미를 나타낸 것이고, Fig. 4는 이중색상의 홀치기 염을 통해 그라데이션효과와 함께 색상의 대비로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묶기를 통해 형성된 문양은 염색기법의 간략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질감의 효과를 나타내며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접기의 경우 원단을 여러 번 접어 서로 결합시키거나 판을 이용하여 염색한 것으로, 현대패션에서는 접기를 이용한 것과 판을 이용하여 형태를 나타낸 것, 그리고 묶기와 혼용을 통한 경우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Fig. 5는 접기의 기법을 이용하고 이를 다양한 방향으로 배치시켜 스트라이프 문양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번지는 효과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Fig. 6은 병풍 접기와 묶기가 혼합되어 표현된 것으로 상의의 원형 홀치기 염과 형태상 대비를 나타내나 상하의 동일 색상의 연출로 통일된 조화미를 나타냈다. Fig. 7은 그레이색상으로 사각 접기 되어 모던하면서도 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8은 사각 접기와 단

Fig. 7. Emma Cook, 2008F/W

Fig. 8. Prada, 2004S/S

Fig. 9. Marni, 2009S/S

Fig. 10. Thakoon, 2008S/S

Fig. 11. Yves Saint Laurent, 2002S/S

Fig. 12. Issey Miyake, 2006S/S

Fig. 13. Marni, 2009S/S

일색상으로 염색되어 추상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Fig. 9는 스커트에 판 접기 기법을 통해 꽃문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트리틱과 같이 바느질하여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은 나타낸 것도 나타났는데, Fig. 10과 같이 단일 색상으로 기하학적인 반복문양을 나타내거나, Fig. 11과 같이 직선, 삼각형, 사각형 등 단순한 문양으로 토속적인 자연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트리틱 특유의 바늘땀에 의한 흔적을 지면이나 화면상으로 식별하기 힘들고, 바느질 기법과 묶기 등의 복합기법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바느질 기법에 의한 홀치기 염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Fig. 12와 같이 주름을 잡아 묶어 홀치기염색 한 원단에 다시 주름 장식을 더해 홀치기 기법을 보다 강조하여 나타내기도 하였고, Fig. 13과 같이 접기를 통해 홀치기염색 된 상의 형태 위에 다시 비즈 장식을 더하여 복합적인 장식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경우 묶기, 접기, 바느질 기법 등 기본적인 표현기법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단일 색상이나 다양한 색상의 혼합사용으로 모던함과 함께 풍부한 장식미를 나타냈고, 홀치기 염과 함께 드레이프, 주름, 비즈 장식 등 다양한 기법들과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장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장식 그 자체는 독자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형예술에서 표현적인 가치를 수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며, 의상이나 공예 등 디자인분야에 있어 기능적인 측면을 위하여 가치매개의 역할을 하는 부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윤민희, 2006). 선의 형태나 원형, 사각형,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적이고 때로는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된 홀치기 염의 효과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장식적인 조형공간으로 표현되어 디자인에 활력을 나타냈으며, 시선을 유도하는 하나의 유인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홀치기 염의 특성상 대체로 문양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여러 색상으로 염색된

경우 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의복의 일부분에 사용된 경우보다 아이템 전체 면적에 적용되어 디자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3.2.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특성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은 단색의 단순한 무늬에서부터 여러 색채가 들어 있는 복잡한 무늬에 이르기까지 색채와 형태의 결합뿐만 아니라 적용된 의복의 아이템과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W. Tatarkiewicz가 “창조성이란 바로 색다름이라고 하면서 모든 창조성에는 색다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색다름은 크던 작던 점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Wladyslaw, 1980/1997).”고 했듯이 강한 장식성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홀치기 기법들은 우리에게 의식과 무의식의 반응을 활성화하는 환상적인 사유를 이끌어 색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홀치기 염을 이용해 환상적인 색채와 다양한 재질감, 형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디자인들은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창조적 새로움을 갖게 한다. 홀치기 염의 기법과 특성을 근거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홀치기 염을 분석한 결과 그 특성을 자연미, 추상미, 율동미로 구분하였다.

3.2.1. 자연미

현대사회에 있어 삶의 풍요로움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물질적 측면 이외에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도덕적 윤리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자연환경에서 생태학적 회복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과 실리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문명사회의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에 지친 현대인들은 자연으로의 회귀 또는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패션을 자연주의로 이끄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자연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복형태,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상과 소재, 질감, 그리고 자연물의 모티브를 이용한 디자인, 수공예적인 기법의 활용 등으

Fig. 14. Michael Kors, 2009Resort

Fig. 15. Blumarine, 2010S/S

Fig. 16. Prada, 2004S/S

Fig. 17. Yves Saint Laurent, 2002S/S

Fig. 18. Jil Sander, 2005S/S

Fig. 19. Prada, 2004S/S

Fig. 20. Etro, 2006S/S

로 자연주의를 지향하며 탈문명화, 탈도시화를 염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특히 하늘과 바다, 꽃 등 자연의 풍경을 본다는 것 그 자체는 인간에게 심신의 안정과 미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홀치기 염을 활용한 디자인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신비롭고 화려한 이미지로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개성 연출을 위한 일상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조트웨어에도 활용되고 있다. Michael Kors는 2009 Resort 컬렉션에서 다양한 기법의 홀치기 염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Fig. 14와 같이 물과 하늘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블루 컬러로 원피스, 드레스, 수영복 등 다양한 아이টে에 적용하여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 2010Resort 컬렉션에서 Proenza Schouler, Costume national 등 역시 다양한 홀치기 기법을 통해 작품을 선보여 휴양지에서의 여유로움과 자연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화이트와 블루의 그라데이션 효과로 물이 흐르는 듯한 이미지를 나타낸 Fig. 12에서도 느낄 수 있다. 2010의 그의 경우 Tori Burch, Rodarte, Etro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홀치기 기법을 활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자연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여 홀치기의 유행을 선도하였고, Blumarine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톤을 활용한 홀치기 염으로 컬렉션 전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Fig. 15는 파스텔 톤의 다색으로 염색된 것으로 블라우스와 핫팬츠, 백, 슈즈 등 전 아이টে에 걸쳐 적용되어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또 Fig. 16과 같이 저채도의 유사색상을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와 함께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Fig. 11, Fig. 17과 같이 아프리카 원시 토속적인 표현으로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가장 소박하고 원시적인 염색기법인 홀치기를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인은 홀치기 특유의 그라데이션 효과로 인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강조시켰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홀치기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미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화사한 파스텔 톤이나 저채도의 컬러를 이용하여 하늘이나 바다, 꽃 등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킨 경우,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원시부족풍의 토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속적 이미지는 아직도 문명이 닿지 않는 원시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창조된 문양, 또는 장식들을 통해 원시자연으로의 회귀와 동경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3.2. 추상미

오늘날 현대 예술사조는 대상의 형태 재현에서 벗어나 자기 표현이 강조되는 조형적인 측면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 현대패션의 예술적 표현이 과장되고 극대화되어가면서 의상은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신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으며 패션의 아트적 경향 역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예술양

식에 나타난 표현양식과 조형적인 요소들은 현대패션에서도 차용되어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김선영, 2009).

홀치기염색을 통해 표현되는 우연의 효과는 현대미술사조에 있어 추상표현주의의 한 기법인 타시즘이나 색면추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추상표현주의는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형태나 무의식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20세기 현대미술의 변화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창조자에게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또 관람자에게는 창조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김현화, 1999). 또 추상표현주의에서의 다양한 기법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공간상 그림과 바탕의 관계가 근접되어 있다는 점, 올 오버, 다 초점, 또는 무 초점의 공간과 정신내용을 가지는 그림이라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홀치기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색면 회화는 커다란 색 면의 캔버스 작업을 통해 명상을 유도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순수시각에 의존하여 넓고 통일된 색채형태나 색 면의 기법으로 추상적 상징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김현화, 1999). Fig. 18은 스웨터 전면에 홀치기 기법을 이용해 번지는 듯한 기법으로 염색하여 강한 색상의 대비를 완화시키고 색면추상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Fig. 19 역시 홀치기 염의 뭉기를 통해 블루와 레드, 그리고 염색되지 않은 화이트의 경계는 색면추상의 회화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Fig. 20은 유사색상을 이용하여 드레스 전면에 표현된 홀치기 기법으로 그라데이션 효과와 함께 색면추상에서 느껴지는 추상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기법은 디자인 전체에 걸쳐 극대화시켜 표현하거나, 상의나 하의 한쪽의 아이টে에만 사용하고 그 대비를 통하여 색면추상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으며, 복잡한 디테일이나 장식적인 요소 없이도 색상의 대비나 색의 번짐, 면 분할 등에 따라 강렬하면서도 순수한 추상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홀치기 기법을 통해 하나의 문양처럼 혹은 자연적 형상의 이미지를 나타내 자연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색면추상의 한 기법과 같이 의복의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인식하고 면의 분할에 따라 강한 색상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홀치기 염에 있어 방염된 부분에 부드럽게 스며든 염료는 수목화의 서체나 번지는 효과를 강조한 타시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타시즘은 얼룩, 오점 등을 의미하는 'Tache'에서 유래한 것으로(한정희, 2004), 드리핑 기법과 유사하나 얼룩과 순간적인 붓 자국으로 행위를 객관화시키고 서정적 성격의 표현으로 물감이 흩어지고, 번지게 하여 우연한 효과에 의한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홀치기 염에 있어서의 우연성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 21은 홀치기 염을 이용해 의상 전면에 걸쳐 문양이 나타나도록 한 것으로 마치 얼룩이 묻어 있는 것처럼 의도되지 않은 문양의 결과

Fig. 21. Issey Miyake, 2007S/S

Fig. 22. Veronique Branquino, 2008S/S

Fig. 23. Daks, 2006S/S

Fig. 24. Blumarine, 2010S/S

Fig. 25. Peter Pilotto, 2010S/S

Fig. 26. Tory Burch, 2010S/S

Fig. 27. Berardi, 2008S/S

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저채도의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되어 마치 얼룩이 번져있는 것 같은 문양의 효과를 나타낸 Fig. 22 역시 타시즘과 유사한 이미지로 추상적 표현을 나타냈다. 이러한 타시즘적인 추상적 효과는 밝고 투명한 색상이나 자연스러운 번지기 효과를 통해 자연미의 특성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저채도의 색상,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얼룩지고 번져있는 것과 같은 탁한 이미지로 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홀치기 염을 의상 전면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문양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Fig. 23과 같이 홀치기 염을 재킷과 티셔츠의 일부분에만 적용하여 장식적인 디테일로 활용함과 동시에 강한 색상대비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오늘날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양한 현대미술양식을 이용하여 착용가능 한 현대미술의 표현의 장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홀치기 염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은 추상표현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 추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다양한 장식성을 부가하였다. 특히 인체 위의 의복이라는 공간에서 이를 하나의 새로운 화면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행위에 의한 우연성의 강조를 나타냄으로써 패션에서의 추상적 예술미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3.3.3. 울동미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패턴은 그 자체에 포함된 여러 디자인의 요소들로 인해 시각적 효과가 크며, 다양한 패턴의 형태와 반복, 방사, 점진과 같은 리듬의 원리에 의해 역동적인 울동미를 표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 느끼게 되는 생기나 활기 등의 단순한 심리작용은 착용자의 외형적, 내면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그 호소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김선영, 2009). 특히 패션디자인에 사용되는 직물자체는 평면적이지만 인체라는 공간위에서 다시 재형성되면서 입체적인 특성을 드러내며, 직물조직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질감의 효과와 디테일적인 장식기법은 보다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를 갖게 한다.

선이나 원 등 기하학적인 형태의 반복적인 효과를 통해 나타나는 홀치기 염의 문양들은 다양한 색상과 반복효과, 의복의 다양한 아이템과 디자인을 통해 그 형태가 바뀌는 등 역동적인 형태나 색채, 또는 문양으로 인식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되는 홀치기염색의 효과는 장식적인 효과까지도 나타낸다.

홀치기 염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묶기와 접기, 바느질 등 방염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직선과 곡선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연속되는 하나의 형태와 면을 이루게 된다. Fig. 5와 같이 접기에 의해 홀치기 된 패턴은 선의 반복적인 요소를 이용해 스트라이프 패턴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염료에 의해 단순하지만 자유로운 리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은 다양한 움직임들 통해서 형태가 바뀌게 되어 단순한 형태가 아닌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 Fig. 6과 같이 접기와 묶기의 혼합기법으로 표현된 경우 접는 간격이나 묶는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연속과 반복의 결합에 의한 교차리듬의 효과로 울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직선의 이미지 외에 Fig. 24와 같이 강렬한 색상 대비와 함께 지그재그 선으로 번지는 효과를 나타낸 것 역시 선이나 색상의 강약으로 점진적인 리듬감을 나타내 추상적이면서도 경쾌한 울동미를 나타냈다. 특히 선을 기본으로 전개되는 홀치기염의 표현효과는 주름이나 드레이프와 같은 기법과 함께 사용되어 반복단위의 형태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형태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Fig. 25와 같이 다양한 색과 함께 선이나 형을 왜곡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인체 위의 의복 공간 내에서 부풀음, 파동과 같은 울동성의 효과를 나타냈다.

곡선 역시 홀치기 염을 통해 표현되는 기본적인 문양으로, 원의 반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도트문양과 같은 이미지는 원의 다양한 움직임과 스며든 염료에 의해 균일하지 않은 형태의 반복으로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리듬감과 울동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 Fig. 26은 단순한 원피스 위에 소용돌이 형태의 원이 나타나도록 묶기를 이용해 홀치기 한 것으로 부드럽게

번지는 색의 효과와 함께 단조로움을 탈피해 유연한 리듬감을 갖게 한 것이다. Fig. 27은 묶기를 이용해 넓은 면에 색의 분할을 적용하고, 또 그 위에 점 문양과 같은 효과로 점진적인 리듬감을 갖게 한 것으로 홀치기 기법에 의해 표현된 점 문양과 같은 형태는 공간의 안정성을 제시하면서도 불규칙적인 크기와 모양의 반복으로 그래픽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리듬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색면추상의 기법들과 유사한 표현으로 추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안정감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리드미컬한 율동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저채도의 색상이나 유사색상, 또는 인접색상의 사용을 이용한 것보다는 강렬한 색상대비를 통해 율동성을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율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홀치기 염의 표현들은 계획된 디자인에 대한 구상으로 나타난 결과이거나 의도되지 않은 우연의 효과로 표현된 형태이든 간에 그 문양의 결과는 대부분 반복과 연속된 형태로 리듬감을 나타내게 되고, 색의 번짐 정도나 강약, 색의 혼합 등에 의해 균일하지 않은 반복리듬의 효과를 나타내 율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4. 결 론

오늘날 예술표현에 있어 보다 독창적인 표현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술 전 장르를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홀치기 염은 현대 섬유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패션의 영역에서도 독특한 형상과 재질감으로 개성적인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홀치기 염은 인간의 의생활과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염색기법 중의 하나이지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 일상생활 중의 생활용품에 적용되거나 작가의 내면세계와 개성을 나타내는 창조적인 예술작품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의 표현기법과 특성에 관한 것으로, 홀치기 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현대패션디자인에서의 조형영역을 확대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전개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홀치기 염은 그 역사가 깊고 세계각지에서 행해진 만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어떤 문화에서나 기법은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Ikat, Plangi, Tritic 등이 전통적으로 나타났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홀치기 염 역시 이러한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묶기, 접기, 바느질 기법 등 기본적인 표현기법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복합적인 기법으로 사용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냈는데, 단일 색상이나 다양한 색상의 혼합사용으로 모던함과 함께 풍부한 장식미를 나타냈고, 드레이프, 주름, 비즈 장식 등 다양한 장식 기법들과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장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홀치기 염의 특성상 다채로운 문양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여러 색상으로 염색된 경우 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의복의 일부분에 사용된 경우보다 아이템 전체 면적에 적용되어 패턴 화됨으로써 디자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표현기법을 이용한 홀치기 염은 현대패션디자인에 자연미, 추상미, 율동미의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자연미의 표현이다. 첨단과학문명과 물질 만능주의의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으로의 회귀나 과거에 대한 향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자연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자연주의적인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고, 홀치기 염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자연미의 특성을 나타냈다. 홀치기 특유의 그라데이션 효과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강조시켰으며,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파스텔 톤이나 저채도의 컬러로 염색된 경우 다채로운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수공예적인 터치 효과는되어 획일적이지 않는 다양한 이미지와 토속적인 문양들은 자연미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원시자연으로의 회귀와 동화시키 갈망하는 현대인의 열망시간절적으로 과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추상적 장식미의 표현이다.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양한 현대미술양식을 이용하여 착용가능 한 현대미술의 표현의 장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을 가운데 홀치기 염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은 추상표현주의의 색면추상이나 타시즘과 같은 유사한 이미지를 며 추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장식성을 부가하였다. 추상표현주의의 추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올 오버, 다 초점, 또는 무 초점의 공간, 그리고 색 면의 분차로운은 홀치기 염에 연의 나타나는 그라데이션이나 저채도의, 그라데이션 효과, 얼룩과 같은 형상로운을 통의 유사한 이미지 효과는되었으며, 인체 위의 의복이라는 공간에서 이를 하나의 새로운 화면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행위에 연한 그성의 강조이미지를냄으로써 패션에서의 추상적 예술미의 가치를 강조시켰다. 셋째, 율동미의 표현이다. 홀치기 염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묶기와 접기, 바느질 등 방염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직선과 곡선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연속되는 점이나 선 그리고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된다. 홀치기 염을 통해 표현되는 문양의 결과는 대부분 반복과 연속, 점진된 형태로 리듬감을 나타내게 되고, 또 색의 번짐 정도나 강약, 색의 혼합 등에 의해 균일하지 않은 반복리듬의 효과를 나타내 역동적인 율동미를 나타냈다.

오늘날 현대패션은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고자 하며, 다양한 장르의 표현기법을 적용하여 실험하는 하나의 장으로 예술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홀치기 염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조형의 영역을 나타내고, 현대패션에 풍부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문양과 질감의 표현에 있어 홀치기 염은 획일적이지 않고 유일무이하는 독창성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효과로 강한 개성을 표출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 새로운 조형의 영역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홀치기 염이 지닌 표현의 효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강한 개성을 지닌 현대인들의 감성에 부응할 수 있는 감성적 디

자인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변화를 통한 창의적인 시도들로 패션디자인에 감각적인 시도들을 불러 일으켜 보다 독창적이고 폭 넓은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선영. (2009a). 21세기 패션에 수용된 추상표현주의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9), pp. 1430-1440.
- 김선영. (2009b). 현대패션에 나타난 도트문양의 표현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9(4), pp. 41-53.
- 김혜경. (2001). 1960년대 말 미국여성복식에 나타난 홀치기 염 패션 -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5(10), 1728-1737.
- 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서울: 한길아트, p. 200.
- 류말지. (2002). *홀치기기법을 응용한 자연의 형상화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송이. (1997). *Tie dye에 의한 컴퓨터 텍스타일 패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태호. (1990). *염색의 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40.
- 서재행. (1991). *공예염색기법*. 서울: 미진사, p. 55.
- 송번수. (1991). *염색의 실제*. 서울: 미진사, p. 201.
- 신영선, 박옥미. (2003). *패션염색디자인*. 서울: 동서문화원, pp. 46-47.
- 윤민희. (2006). *문화의 키워드*. 서울: 예경, p. 61.
- 이상태. (2001). *홀치기염색*. 서울: 태학원, p. 8.
- 이연순, 정정숙, 이영희. (1997). *염색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p. 216.
- 이주연. (2000). *현대 홀치기 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희. (2004). *회화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ona, Z. M. (1973). *Contemporary Batik and Tie-dye*. New York: Croun.
- Else, R. T. (1971). *The Art of Weav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Grethe, W. (1989). *Shibori*. Denmark: Tommeliden.
- Jack, L. L. (1994). *세계의 염색예술* (김수석 역). 서울: 미진사. (원저 1976 출판)
- Yoshiko, I. W., Mery, K. R., & Jane, B. (1993). *Shibori*. USA: Kodandha America Inc.
- Wladyslaw, T. (1997).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역). 서울: 미진사. (원저 1980 출판)

(2010년 11월 22일 접수/ 2010년 12월 23일 1차 수정/
2010년 12월 23일 게재확정)